

새내기 다이어리

특집1. 동양학
특집2. 운동
특집3. 생활



open your mind
새로운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보자
지금, 여기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산하 성평등 특별위원회 달배

발간사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나간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관에도 이제 새내기 여러분들과 함께 봄이 찾아들었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달해도 이제 두 돌을 맞았습니다. 달해는 '한의대 내의 성평등 정착'이라는 모토 하에 2000년 발족한 학생회 산하 성평등 특별위원회입니다. 사회의 성불평등이 바뀌지 않는 한 한의계의 성불평등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뼈아픈 인식 하에 '우리 주위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생각으로 기존의 여학생회를 해체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특별위원회로 거듭났습니다.

달해는 첫째, 성평등의 주체는 여성과 남성 모두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둘째, 인식적 저변이 바뀌어야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달해신문을 발간하여 한의대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와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을 맞으면서 우리는 새내기들이 한의대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슴깊이 간직해왔던 고민들을 모아서 여기 <새내기 다이어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막 새내기를 끝내고 선배의 길로 들어서시는 선배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뭉쳤습니다.

한의학 공부는 재미있을런지, 동기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학교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을런지, 무엇을 해야 후회 없이 새내기 생활을 보낼 수 있을 지... 처음의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새내기가 된다면'이라는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달해인들만이 잘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살려내고자 애썼습니다.

앞으로도 새내기 여러분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변의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대학생생활을 만들어갑시다.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정황미자

축사

‘넷이서 하나가 되려면 열심히 서로 넷이어야 합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되기 위한 넷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달해 여러분의 새내기 다이어리 발간을 축하합니다. 새내기 다이어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신입생들에 대한 배려가 담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일전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다녀왔습니다. 새터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로 활기차게 반짝이고있는 많은 새내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새내기들을 볼 때 참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군산에서는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여성들을 가두어두고 매춘을 강요하던 매춘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여성들이 강금당한 채 죽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벌이며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부시가 방한했습니다. 남대문에서, 광화문에서 부시방한 반대를 외치던 많은 학생들은 구속되었습니다.

등록금이 비싸 대학생의 3분의 1일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조치로 국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의 큰 폭 인상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교육을 상품화하는 정책들을 더욱 가속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활하기 시작한 대학의 모습이나 대학에서 접하게 될 사회의 모습은 그리 쉽지않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넓은 것,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로 눈을 반짝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갈 때 희망은 있습니다.

02학번을 산소학번이라고 합니다. 02학번 여러분 모두 산소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 33대 학생회장 선영

책을 내면서

먼저 한의대에 들어온 02학번 후배님들, 축하드립니다. 한의대에 입학한 것이 바로 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의 후배들이 들어온다니 설레고 기쁜 마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경험과 느낌을 많이 살려 새내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새내기 다이어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새내기 다이어리를 만들면서 저희는, 한의학과 운동, 또 일상 생활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자는 주제로 기획의도를 잡았습니다. 이때까지의 고등학교 생활과 한의대에서의 생활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획일적인 고등학교 생활과는 달리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학문들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새내기 여러분, 생활이 확 트이고, 또 권리와 의무가 많아진 만큼 사회와 학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그런 변화를 느끼셨나요?

성평등운동을 1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가 아니란 이유로 무관심하게 지나치기보다는 그런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또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눈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자신과는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면 편견과 차별은 없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더 많은 경험과,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대학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과 많이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한의학’이란 학문도, ‘운동’에 대한 것도, ‘생활’에 관한 것도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낯설고 생소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배운 것과 다르다고, 지금까지의 나와 낯설다고 멀리한다면 ‘나와 다른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다양한 삶과 분야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자”란 것을 이 책의 전체 주제로 잡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태도, 따뜻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은 미약하고 어색하겠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바깥으로 돌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다. 이 책이 새로운 길을 떠나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다이어리 기획인 일동

새내기 다이어리

— Open Your Mind

contents

1. 발간사

2. 독서

3. 여는 글

4. Open Your Mind 1

- 한의학

★ 음양으로 연애 따라잡기

★ 음양 버리고 떠나기

★ 책들의 수다

☆ 이어가는 페이지 - 폐인보감

5. Open Your Mind 2

- 운동

◆ 성이 뜨거운 사람,

성이 없는 사람?

◆ 생명운동, 같이 할래?

◆ 表裏寒熱虛實陰陽과 세상인

기

☆ 이어가는 페이지 - 빛집 편집

6. Open Your Mind 3

- 생활

♥ 아름다운 여행자, 정수

♥ 건강한 몸이 아름답다.

♥ 생활의 쓴맛

7. 편집의 변

8. 만든 이들에 대해서

목차

Open Your Mind!!

Yearly Plan - 동양학 (東洋學)



동양학

☞ 음양으로 연애 따라잡기(영빈)

☞ 음양 버리고 떠나기(영빈)

☞ 책들의 수다(지원)

수이어가기

☞ 폐인보감(廢人寶鑑)

음양으로 연애 따라잡기

자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못 먹던(?) 술도 많이 먹어야겠고, 여기 저기 못 가본 곳 골라서 여행도 다녀와야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성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나랑 맘이 꼭 맞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요? 음양 사상을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웬 똥판지같은 소리냐고요? 음양 사상은 그냥 한의학 할 때만 쓰이는 것이지 이성 친구 사귀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물론 상관이 있습니다. 음양 사상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 - 나 VS 너

음양 따라잡기 - 이론편

자 그럼 음양을 배워볼까요? 자연에서 음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밝음/어두움, 딱딱함/부드러움, 상승/하강, 뜨거움/차가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앞의 것이 양의 모습이고, 뒤의 것이 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음양 개념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조화입니다. 음 혼자 또는 양 혼자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밀고 당겨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연애 따라잡기 - 실전편

영화 디비기 - '엽기적인 그녀'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을 쓰지는 않더군요... 저만 그녀를 지켜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몸을 미쳐하게 부르르 떠는 듯 침더니... "우웬에에에에에에..." "차르르르르르르..."

네... 그러잖나... 그녀가 갑자기 앞에 앉은 대머리 아저씨 머리에... 일을 치는 그 순간... 오로지 저만이 그 순간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었잖나.



너무나도 엽기적인 그녀, 그녀의 이런 강하고 밝은 모습은 양입니다. 그 옆에는 전우가 있습니다.



전우 : 저기요

그녀 : 너냐? (대뜸 너냐? 어썸니다... 이 여자가 증말!)

전우 : 네 전대어... 근대... 대뜸 반말을 하잖습니까?

그녀 : 아 비고프고 죽소리다. 밥머그러 가져

전우 : 네...

전 거기서 "네" 라고 바래 말 후 엽기적... 임 당해보세여...

전우, 순식간에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전우의 이런 약한 음적인 모습이 전혀 쓸모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때리면 안아파도 아픈 척하거나 이파도 안아픈 척하는 걸 좋아해... 작, 만난 지 백일이 되면 강의실에 찾아가서 장미꽃 한 줄을 내밀어 보여... 너무 좋아할 거여... 글썽 가끔 유치장에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 대어... 가끔 죽인다고 겁박하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여... 그래야 편해... 가끔 다리가 아프다면 신발도 바꿔 신어 주세여...



만약, 그녀 옆에 또 강한 양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지요? 이렇게 전우의 약하고 부드러운 음적인 모습이 그녀의 양적인 모습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반전 - 내무 VS 니무

음양 따라잡기 - 이론편

하나의 물질을 음적인 것, 양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물질 속에서도 음양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조개나 소라를 보면 껍데기는 딱딱합니다. 그러나 속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물고기를 보면 반대입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의 뼈는 딱딱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의 이면에는 약한 본성이 숨겨져 있고,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 속에는 꺾이지 않는 강함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차갑고 냉정해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의 속마음에 의외로 열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고, 밝고 따뜻한 사람이 의외로 냉정할 수 있습니다.))

연·4 따라잡기 - 실천편

영화 디비기 - '엄기적인 그녀'



그녀 : (큰 소리)건우아! (작은 소리) 미안해... 나 정말... 아무래도 극복할 수 없나봐.
건우의 외침,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녀 : (큰 소리)건우아! 미안해! (작은 소리)미안해... 눈물을 흘리는 그녀...
그녀 : (큰 소리)건우아! (작은 소리)나도 어릴 수 없는 어진가봐 난... 다름다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고 강한 그녀가 왜 눈물? 그렇습니다. 그녀의 겉으로 양적인 모습 속에는 여린 음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음적인 성질과 양적인 성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처음에 겉으로 보이는 특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볼 수 없겠죠. 속에 감추어져있는 모습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1) 음양이 뭐지?, 천창선·어윤형 지음, 세기출판사 참조

영화 디비기 - 그 남자 그 여자의 사랑

그 여자의 서정	그 남자의 서정
고등학교에 입학한 유키노. 그녀는 단정하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인품 좋은 우등생이지만 길에서는 게으르고, 심술? 그, 그깟 선 죽 타인에게 좋게 보이려는 허영의 왕(실체는 이것!)이었다. 그런 그녀의 실체를 아리마에게 들켜버렸다. 그리고는 유키노는 생각한다. 아리마는 나의 외적인 면을 좋아했을 뿐이지 이젠 실체를 알았기에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웬걸, 아리마는 유키노에게 말한다 "난 아직도 너가 좋아" "유키노는 나에게 얻는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난 특별하지 못해. 난 느껴 내가 철저하게 규격화된 무개성의 인간이라는 것을"	아리마의 친아버지는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큰 빚을 내는 등 많은 문제거리를 만들고 다녔다. 아리마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었으며 친척들로부터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지 않기 위해 공부 잘하고 아무런 문제도 만들지 않는 바른 생활 어린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규격화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이런 그가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유키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숨겨져 있는 모습도 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나 유키노가 서로의 겉의 모습만 사랑하고 속의 감추어져 있는 서로의 모습은 알지 못한다면? 어딘지 모르게 안 맞다고 생각되고 사귀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겠지요. 이렇게 음양은 속의 감추어진 모습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줍니다. 또한 속에 감추어진 모습을 알게 된다면 음양 사상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이 되지요.

연가전

음양 사상은 이처럼 서로를 배려해주는 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줄 뿐만 아니라(전반전 내용) 서로의 속 모습까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키워줍니다.(후반전 내용)

음양 오행이라고 하면 왠지 수업시간에만 듣는 것 같고, 두꺼운 한문으로 된 책에서만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데도 적용되는지 몰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음양 사상은 사람을 사귀는 때뿐만 아니라 작게는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크게는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또, 음양 사상이 주변의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변의 일에 대한 풍부한 경험도 음양 오행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귀면서도 음양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회는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음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는 것이죠.

때론 실연에 아파도 보고, 때론 한없는 기쁨에 빠져도 보고, 때로는 자기만의 고민에 빠져도 보고, 때론 사람들과 어울려도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음양 오행과 한의학이라는 키워드는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음양, 버리고 떠나기

음양이 뭘까요?

한의학을 배우게 되면 처음 듣게 되는 말, 그리고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음양입니다. 한의대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믿고 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음양이 뭘까요? 뭐, 너무 오묘해서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고요. 그래요? 그럼, 음양을 이야기 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항목을 찾아볼까요?

분별	공간	시간	계절	성별	대표 물질	조직 구조	
陽	天	낮	봄, 여름	남	火	육부	氣
陰	地	밤	가을, 겨울	여	水	오장	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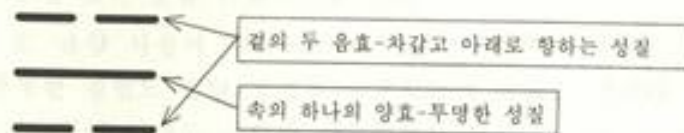
음양을 나타낼 때는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꼭 음과 양 하나의 성질만을 띠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래 예들을 보면 물질들이 음과 양 두 가지 성질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 물 - 순(純)음, 불 - 순(純)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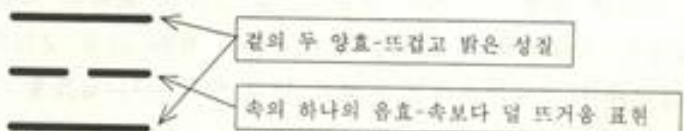
물을 예로 들어봅시다. 흔히들 물을 음이라고 말하죠. 물의 차갑고 아래로 향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내부는 투명한 성질이 있어서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역에 물을 나타내는 감괘(坎卦)도 겉의 두 효는 음효이고 속에는 하나의 양효가 있습니다. 불을 보죠, 불의 겉은 분명 열과 빛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표면보다 어두우며 겉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음이라고 말합니다.²⁾

감괘(坎卦)-물을 표현



리괘(離卦)-불을 표현



두 번째 : 남 - 순(純)양, 여 - 순(純)음??

또 남녀를 봅시다. 흔히들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생식 양상을 기준으로 음양을 구분 할 때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속성으로 음양을 나눈다면 반대로 남자가 음, 여자가 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양 개념은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목소리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음적인 낮은 목소리를 내고 여자는 양적인 높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혼재는 단순히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부분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를 단순히 양이라고 하고 여자를 단순히 음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남자답고 여자는 음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여자답다고 여기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행동을 규정짓습니다. 남자가 음적인 행동을 해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여자가 양적인 행동을 해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2) 『역학원리강화』, 한규성 지음, 166~169쪽 참조

세 번째 : 인삼이 차가운 약??

인삼은 북쪽 지방의 햇볕이 별로 비치지 않는 음습한 땅에서 자랍니다. 음습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이 인삼을 윤택하게 해주어서 달고 쓴 음미(陰味)가 많답니다. 그러나 인삼은 음인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양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기를 보충해주는 것이지요.

주사(부적 그럴 때 쓰는 빨간색 물감)는 반대 작용이 있습니다. 주사는 따뜻한 지방에서 생산되고 겉은 빨간 불의 색을 띠기 때문에 겉은 양입니다. 그러나 속은 음이라서 심장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하는데 쓰입니다.³⁾

만약 단순히 드러난 성질만 보고 "인삼은 음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차가운 약일 것이다." "주사는 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따뜻한 약일 것이다"라고 하면 완전히 약성을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왜 이런 실수론?

만물을 파악할 때는 그냥 물체 자체만 보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그냥 물로, 불은 그냥 불로, 남자는 그냥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조금의 설명을 붙입니다. "이것은 음이고 저것은 양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물의 특징에 쉽게 근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음양과 같은 개념과 상징들을 실제 그 사물 자체로 곧잘 혼동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에 대한 그 간략한 설명이 실제보다 더욱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⁴⁾ 남자의 어떤 특징은 음이고 어떤 특징은 양이라고 해서 일일이 파악하기보다는 간략히 남자는 무조건 양이라고 여기는 것이 쉽다는 것이지요.

그분을 잊어라?

그래서 일찍이 장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국역 본초문답』, 당종해 저, 김준기 역

4) 자크 라캉, 권택영 외 옮김,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荃者所以在魚, 得魚而忘荃,
蹄者所以在兔, 得兔而忘蹄,
言者所以在意, 得意而忘言⁵⁾

그물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지만, 물고기를 잡고는 그물을 잊고,
뿔은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지만, 토끼를 잡고는 뿔을 잊고,
말은 뜻을 통하기 위한 것이지만, 뜻을 얻은 후에는 말을 잊어야 한다.

물이 음이라는 것 불이 양이라는 것,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라는 것은 물과 불, 남과 여를 파악하기 위한 그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그물을 전부인 양 여기면 물질의 본질을 오인하게 됩니다. 세상에 100% 음, 100% 양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엇이 양이고 음이라는 그물을 잊어서 한 사물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물의 본질에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처음에 음양 개념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본질이나 특성들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지요. 그러다가 음양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기 시작하지요. "산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지, 물은 차갑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지"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더 이상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산과 물이 음과 양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산과 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싶어서 음양 개념을 도입했는데 단순하고 도식적인 개념 도입으로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져 버린 셈이죠. 산과 물의 드러나는 성질은 알지만 산이 땅에서부터 뚫고 올라 올 수 있을 만큼 동적이라는 것, 그리고 물이 강하고 딱딱한 성질을 감추고 있는 것(물과 시멘트가 섞여서 만들어진 콘크리트가 강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은 알지 못합니다.⁶⁾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산의 본질이나 특징, 물의 본질이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단순하고 도식적인 음양 개념을 버린 이후입니다.

5) 南華經, 雜篇, 外物第二十六 참조

6) 「음양이 뭐지?」 전창선·어윤형 지음 세기 출판사

더 이상 "이것은 음이다." "저것은 양이다."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음양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⁷⁾

음양을 정말 사랑한다면?

한 사물도 기준에 따라서 음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음인 것도 저런 관점에는 양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 사물이 음과 양 중 하나의 성향만을 가진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도식화된 음양 개념을 버려야 자유롭게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양, 버리고 떠나기'는 가장 음양을 잘 알고, 가장 음양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음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음양의 본 모습은 단순히 "이것은 음이고, 저것은 양이야"하는 것은 아니죠. 음양을 정말 사랑한다면 음양을 버리고 떠나서 음양의 본 모습을 찾아주세요.

7) 속경덕전등록(續景德傳燈錄)권22, 白雲和尚의 화두

노승이 삼십 년 전에 참선하기 전에는(老僧三十年前未參禪時),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았다(見山是山, 見水是水). 그러다가 나중에 선지식을 권견하여 깨침에 들어서서는(乃至後來親見知識有人處),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지금 편안한 휴식처를 얻고 나니 마찬가지로(而今得箇休歇處)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로 보인다(依前見山祇是山, 見水祇是水.) 그때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大家這三般見解是同是別?)

책들의 수다

-힘차고,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예과 2년 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본과에서의 구체적인 한의학 공부에 앞서, 한의학을 하는데 필요한 나름대로의 관점과 시각을 정립하고 많은 경험을 쌓는데 목표를 두어도 될 듯하다. 하지만 전공이 정해져있고, 6년 동안 거의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한의대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내가 속한, 우물갠이 좁은 세계를 벗어나 정말 다양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독서의 가장 큰 의미인 것 같다. 독서를 하면서 점점 나 자신과 목표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한의학은 한 분야를 평생 파야 하는 노력과 올곧음이 필요한 전공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보면 뚜렷하고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그런 등불이 된 책을 소개하겠다.

<생명의 느낌>



바바라 맥클린톡은 1983년, 여성 단독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다. 이블린 폭스 켈러가 쓴 그녀의 전기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 뿐 만이 아닌, 그녀의 생애와 사상, 당시의 시대상황까지 때론 어렵게, 또 쉽게 나에게 일깨워준 책이었다.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초창기였을 시절에 그녀는 자리바꿈(transposition : 정기능을 발휘하는 유전자의 한 단위가 통째로 자리를 옮기는 것) 현상, 즉 뛰는 유전자(jumping gene)를 발견함으로써 유전학에 공헌했다. 여성이 대학을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는 평생을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했다. 그리고 당시 주류 유전학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현상을 발견했고, 이를 설명하였다. 결국 40년 이상 유전학이 발전한 후에야 그녀의 앞선 작업 결과는 뒤늦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흔히 '서양적, 서양 과학, 서양 의학'하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서양 자연 과학을 이끄는 유전학에 있어서 그녀의 방법은 이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녀가 강조했던 직관과 통찰력, 연구 대상인 옥수수와의 교감(交感)은 오히려 동양 철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생명의 느낌'을 이해하는 방법은, 인간을 전인적인 유기체로 바라보고 본질을 파악하는 한의학적 방법과도 통하지 않을까?

그녀의 결과가 인정되고 나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 설명하는 그녀 특유의 방식은 유전학계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물리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이나 슈뢰딩거 등 동양사상과 유사점을 찾으려는 패러다임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종양을 이해하려면, 나 자신이 종양이 되어야 해요"라는 그녀의 말처럼, 생명을 마음으로 느끼고 소중히 하려는 감수성이야말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이었다.

<소박한 밥상>



헬렌 니어링은 남편 스콧 니어링과 함께 반자본주의, 반전주의를 몸소 실천하며 평생을 소박하게 보낸 채식인이다. 주류와는 동떨어져 소신있게 일생을 보낸 사람의 자기 성찰과 사상을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소비가 곧 미덕'이었던 미국 사회의 흐름을 거부하고 모든 존재의 생명을 존중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이 책의 주요 논지이다. 앞 부분에는 크게 채식과 자연식에 대한 그녀의 관점이, 뒷 부분에는 그것에 따른 간단하고 소박한 요리법이 쓰여져 있다.

못 먹어서 병이 되는 것보다, 잘 먹어서 병이 되는 현대에서, 헬렌 니어링의 이런 소박하고 조화로운 생활법은 건강을 위한 한 대안이 될 것 같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다큐멘터리나, 손영기 원장님의 『먹지마 건강법』, 『나는 풀 먹는 한의사다』라는 책에서 권장한 채식과 자연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도 그녀가 평생 실천한 삶과 서로 통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상의 모든 것에 연민을 갖고, 최대한 많은 것에 유익을 주고, 최소한의 것에 해를 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을 못쓴다'는 선입관만으로, 다른 살아있는 생명들을 간접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지, 또 그녀의 말처럼, 꿀과 우유같은 음식도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위

한 것인데 자신만을 위해 소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단순히 채식과 건강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넘어 다른 생명에 대한 조화로운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헬렌 니어링은 말하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존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을 살아 나가는 것이다.

책에 소개된 요리들이 서양의 예를 따른 것이라, 우리의 식생활과는 많이 달랐고 실천하기 불가능한 것들이 많았다. 요리법이 낯선 것이라던가, 식재료들도 생소한 이름이 많이 나타난 것 등은 약간 불편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단점을 넘어서, 다시 한번 건강과 조화로운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전해 주었다.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거야>



도발적인 제목, 자서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튀는 형광 분홍과 연두, 그리고 당당하면서도 자신감에 넘치는 한 여인의 얼굴. 그것이 표지를 본 첫 느낌이었다. 현경은 젊은 나이에 유년 신학 대학 종신 교수로 임명된 신학자이다. 기독교 학과 교수이면서도 기존 신학의 틀을 깨는데 앞장서온 진보 신학자이다. 여성·반전·환경 운동가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의 틀 속에 갇히지 않고 불교, 힌두교, 고대 여신종교 등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통해 자신이 얻은 것들을 밝히고 있다. 페미니즘의 친환경적인 모습을 환경에 응용한 에코-페미니즘 개념이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란 살림이스트란 개념이 그녀가 이 책에서 강조한 '여신의 힘'이다.

그런 점에서 여신에 대해 설명하는 프롤로그가 그녀의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낸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책이 태어나기까지의 힘든 과정과 지금의 폭력적이고 획일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이 마음에 와 닿았다.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회의 폭력과 억압, 병들은 그녀의 말처럼 온갖 형태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물들어 있는 것 같다. 성별의 다름, 빈부의 다름, 인간과 동물의 다름, 피부 색깔의 다름, 소위 정상인과 장애인의 다름... 그 수많은 다름이, 차이와 배려가 아닌 차별이 된 것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철저한 진보주의 급진신학자의 글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용기와 신념, 그리고 자유로운 태도였다. 한국이라는 간판 위주의 사회에서 안정된 교수직을 포기하고 다시 배움의 길로 들어설 만큼의 용기와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소신있게 행동하는 신념을 그녀에게서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직 기독교에 의존한 신의 해석

에만 골몰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을 '표현'하고 다른 종교를 넉넉히 받아들이는 자유로움 또한 느껴졌다. 정형화되고 똑같은 틀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는 정신이 그녀가 말한 '여신의 힘'이 아닐까 싶다.

<책을 접으며>

저자인 세 사람의 사상, 학문, 분야, 시대, 지지자와 반대자들에 이르기까지 외형적으로 본다면 공통점은 크게 없다. '비주류세력이(있)지만 인정받은'이라는 단편적인 사실 말고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의 자세와 용기야말로 시대를 이끌고, 또 시대를 바꾼 세 분의 공통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바바라 맥클린톡의 직관적·감성적 시각과 진리를 향한 외침고, 아름다운 연구, 그리고 헬렌 니어링의 생명 존중사상과 조화롭고 소박한 삶. 그리고 현경 교수님의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 있는 자세와 틀을 깨고 날아갈 수 있는 용기는 우물 속 개구리에 만족하고 있었던 나의 눈을 띄워 주었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 언뜻 보면 세 사람은 서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 두 권은 번역서이고, 또 한 사람은 외국에서 오래 공부한 학자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의 사상은 서양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동양 철학이나, 동양 의학과 서로 통하고 공감되는 면이 많다고 본다. 바바라 맥클린톡의 직관, 헬렌 니어링의 자연관, 현경의 다양성은 "서양적인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다"란 선입견을 뒤집는 예가 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의대 첫째 동안의 시간은, 이때까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시기라 보아도 될 것 같다. 이때까지 20년 이상 접해온 대부분의 서양적인 지식과 패러다임이 동양적 패러다임으로 한순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사색한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게 되면서, '서양적인' 사고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책을 통해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닐까? 예과 1학년 생활을 마감하는 방학에, 내가 찾은 등불은 바로 이것이었다.

길 밝 자 내 여 이 마 말 알 사 단 이 고 일 이 단 예 용 수
 움 은 신 리 거 예 지 이 적 피 어 미 뇌 로 전 어 성 어 년
 열 세 외 니 폐 백 앞 되 세 적 가 지 하 심 까 폐 저 의 간
 고 상 정 이 인 성 는 었 포 용 단 었 는 각 지 인 림 등 열
 자 으 제 글 보 들 바 움 분 불 시 연 사 한 는 廢 때 장 기
 하 로 를 로 감 움 이 움 자 능 간 폐 람 타 중 人 오 과 랑
 노 들 폐 만 廢 어 다 한 들 상 만 인 외 격 대 이 른 함
 라 아 달 백 人 여 란 뜻 태 예 이 움 한 있 때 라는
 오 고 성 寶 백 매 마 의 라 받 있 었 으
 는 이 鑑 는 는 온 으 니

廢人寶鑑

폐:인(廢人)[폐-/폐-][명사]

1. 병이나 못된 버릇 따위로 몸을 망친 사람
2. 기인(棄:버릴 기 人)

아래 사항들 중 현재 자신에게 해당되거나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또는 경험할 듯한) 사항에 대해 문항 수를 체크하십시오

裏

- ☐ 어른 시건에 잔다. 얼떨어 야닌..하루 중 어른시건 --
- ☐ 아침을 먹고 형을 내 학원까지 거어가 경의실(혹은 교실)에서 잔다.
- ☐ 아침을 먹고 형을 내 침대로 거어가 잔다 --
- ☐ 짜장면집에 형폰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중 걸어서 주문한다.
- ☐ 지난번에 시켰던 짜장면과 함께 왔던 면우지와 영파를 먹는다 --
- ☐ 형상 손면 뻗으면 형 어딘가에 바싹 바른 먹물 것 부스러기가 있다.
- ☐ 비디오가게 아저씨가 내 나여와 내가 안 본 최선적을 외우고 있다.
- ☐ 병원에서 덩굴다가 정동에 머리를 자주 댈는다. --::
- ☐ 책상 위에 빈자리가 거의 없고 더럽다. --a::
- ☐ 여불은 형상 형에 널부러져 있다.(침대라든 시트 모양이 사람 체형에 맞춰져 있다 --::)

- ☐ 추리닝을 즐겨 입는다.
- ☐ 운동화보단 쓰레빠--가 좋다::
- ☐ 쓰레가통이 수북하다. --:: (혹은 병연어 쓰레가정이다::)
- ☐ 염마가 오즘 통 나에게 딸을 경지 않는다. --::
- ☐ 견혹 한다는 말어 "종 나가라. --::" 어다::
- ☐ 열명한 음식은 해먹는다.(라면.. 콘푸로스트.. 등 --)
- ☐ 하지만 만드는 게 귀찮아 짜정면 배달시킨다. --a::
- ☐ 그러나 먹는 것도 귀찮아 못먹고 다시 잔다. --::
- ☐ 나는 여는 동거동어 날보고 누구냐고 그린다.
- ☐ 나도 모르던 동거동어 날보고 교수님어려다.

表

- ☐ 온 몸을 세척한 기억이 가물거물하다.
- ☐ 영말을 벽에 던지면 달라붙을 것 같다.
- ☐ 빨려한 영말을 신어본 기억이 아련하다.
- ☐ 옷에서 구리구리한 냄새가 난다.
- ☐ 땀 한꺼를 얻어먹기 위해 1시간 거리도 마다 않고 가곤 한다.
- ☐ 떡볶어라도 사준다고 나오라면 기뻐 날땀다.
- ☐ 술먹자고 하면 여미 전국어다.
- ☐ 나의 영혼이 지갑에 저장중해있다. --
- ☐ 나는 술의 노예어다.
- ☐ 사립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기도 했다.
- ☐ 청편위를 굴러가는 당구공의 환상도 가끔 보인다.
- ☐ 땀만되면 괜히 형에 돌아다니고 싶다. --::(일명 배--회)
- ☐ 옷이 정리가 안된다.(아무데나 걸거나 넣는다. --:: 결국 한쪽에 수북히 쌓여있다. --::)
- ☐ 정은 집에서 잔다. 염마 몰래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라도.
- ☐ 낮정은 집에서 잔다..땀정은 길가에서 비둘기등과 함께 잔다.
- ☐ 정은 집에서 잔다. 누구 집어던 무슨 상관인가.
- ☐ 일어나 보면 모르는 동네 전봇대 아려어다.
- ☐ 음주 후 생성된 부침개 반죽--에 얼굴을 묻어본 일어 있다.
- ☐ 경찰타먹 때로 내게 덤벼다. 전봇대도 가끔 시비를 건다.
- ☐ 맥주는 음로수다. @.@

자... 다했는가? 그럼 재점을 하도록 하자.
우선 점수 재점을 하시고...

- 1단계) 0개 : 당신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세간에서는 성인군자라고 미화해 부르기도 한다. 혹시 거짓으로 답한 건 아니겠지?
- 2단계) 1개 ~ 5개 : 이 정도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 아직 당신은 깔끔하다.
- 3단계) 6개 ~ 10개 : 여기까지도 오케이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다.
- 4단계) 11개 ~ 15개 : 미가 엿보인다. 갖고 뉘자.
- 5단계) 16개 ~ 20개 : 당신... 백수군. 하지만 노력하면 돌아올 수 있어.
- 6단계) 21개 ~ 25개 : 올해 고생이 많겠다.
- 7단계) 26개 ~ 29개 : 달리 할 말이 없다. 최고를 향해 달리자. -_-...
- 8단계) 30개 ~ 35개 : 축하한다. 같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한해 시험을 한두번은 더 볼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쥐겠다.
- 9단계) 36개 ~ 39개 : 새내기를 두세 번 할 수도 있겠다. 신나지 않는가?
- 10단계) 40개 : 가까운 곳에 강이 있다. -_-;; (잠-_-수하라...)

그럼 다음 단계로...
일단 위 문항의 表, 表 중 어느 부분에서 정답이 더 많이 나왔는가?

리(裏)에서 많이 나왔다면 → 당신은 **음 적 폐 인**

이 유형의 사람은 폐인성이 음적으로 치우쳐있다. 주로 영상물과 수면에 탐닉하는 유형의 인간으로 수적으로 우세하며 그 게으른 성격과 늘어지는 습관으로 인해 고지기 어려운 악질적인 종류의 폐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민초들은 가끔씩 아무도 모르게 화관에서 조용히 사라져 가는 유급·자퇴중세를 보이기도 하므로 시급한 치료를 요한다. 음적 폐인제군들은 가능한 운동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는 오직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만 가능하기에 앞에 말한 특성을 지닌 음적 폐인으로서의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다. 고로, 이를 치료하는 데에는 동기들과 선배들의 흥미 유도를 통한 규칙적인 동교와 적극적인 동아리·과내 활동을 저방하는 바이다. 이상적인 치료의 경우

운동량 부족이라는 악점을 꾸준한 공부를 위한 강점으로 전환시킬수도 있다.

표(表)에서 많이 나왔다면 → 당신은 **양 적 폐 인**

이 유형은 위와 반대로 폐인성이 양적으로 쏠려있다. 이의 주원인은 음주와 당구등의 발열적인 활동으로 수적으로는 비교적 적으나 그 열성은 비견할 바 없다. 이런 폐인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의 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선을 넘었음을 깨달는 순간 스스로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 깨닫기는 어려우니 음주구토나 사기당구장면을 목격하는 화우는 본인에게 이를 일러주거나 114를 지그시 눌러줌을 권장한다. 극약요법으로는 포화요법이라고 불려우는 치료법이 존재하는데 그 요법의 골자는 2주간 식후 30분마다 고량주 1병씩을 투약함으로 한다.

양쪽의 개수가 같다면 → 당신은 **음 양 화 병 폐 인**

이 유형은 양쪽의 균형이 매우 잘 잡힌 Type으로 성인군자형이나 잠수요망형 폐인이 목표로 삼는 유형이다. 이에서 폐인의 양 끝은 다시 하나로 모임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이다. 다만 1차 재점시 8단계이상 획득인물이 이에 속할 시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감금치료를 필히 요구한다.



Open Your Mind!!

Monthly Plan - 운동 (movement)



운동

① 성평등운동, 같이 할까?(수경)

① 성이 두 개인 사람, 성이 없는 사람(지현)

① 표리한결허실음양(表裏寒熱虛實陰陽)(구자훈)

쉬어가기 ♡ 맛집맛집 - 숨겨진 명가를 찾아라!(병진)

성이 두개인 사람, 성이 없는 사람?

- 세터에 온 산소학번, 깜짝 놀라다!?

신나는 기분, 또는 약간은 어색한 느낌으로 수련원에 간 파릇파릇한 산소학번!(주:산소학번, O₂학번을 말함) 약간은 쑥스럽게 자기 소개들을 하는데,

"어? 왜 저 누나는 성이 없지? 혹시 이름이 외자인가? 어리? 저 오빠는 왜 이름이 네 자야? 성이 두 개인가? 보니까 학생회장 언니랑 부학생회장 오빠도 성이 없잖아?"

하는 술렁거림이 소개시간 중에 간간이 터져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에서 약간은 이상하고, 또 어색한 감정을 느끼셨다고요? 처음엔 이런 네 자, 두 자의 이름이 생소한 게 당연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아버지의 성+자신의 이름'으로 구성된 이름이잖아요. 혹시 이런 이름을 듣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하고 나쁘게 보시진 않았겠지요? 부모성 함께쓰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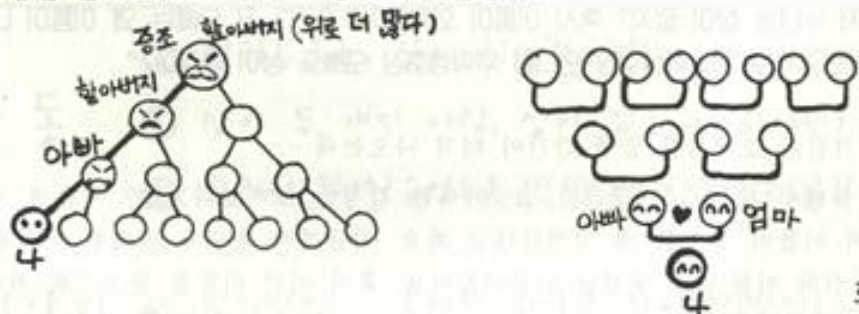
💡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이란 뭐예요?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름에 어머니의 성을 하나 더 붙여서 일상 생활에서 쓰는 운동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김**]라면, 어머니의 성인 '이'자를 이름에 하나 더 붙이는 것이지요. [이김**]이든, [김이**]로 쓰는 상관은 없어요. 이런 운동은 "우우우~ 왜 남자만 성을 물려주냐~! 억울하니까 여자도 성을 물려줘야 돼!" 라는 단순 논리가 아니에요. 한쪽 성만, 남자의 한쪽 성만 물려줄 수 있고, 또 집안의 어른이 된다는(나이에 관계없이 말이죠)것을 지양하자는 의미입니다.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이 지향하는 사회는 가부장도, 가모장도 아닌,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운동이 바로 이런 운동입니다. 결국 이 운동은, 부계 혈통주의나, 가부장제 같은 고정관념이 담겨 있는 법인 호주제⁸⁾를 폐지하자는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부모성 안쓰기 운동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요.

💡 어? 그럼, 조상님, 족보, 가문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성 함께쓰기를 주장하는 근본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코드로 족하다.' 요컨대, 그 이름에 가문이 들어가고 그 가문이란 것 때문에 지치고 부고 싸우고 하는 일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실제로, 호주제 때문에 이혼 후 어거니가 살고 있는 자녀를 어머니 호적에 어머니 성으로 넣을 수 없고(얼마 전 드라마 '아름마'에서 남편과 이혼한 오삼숙이 절망하고 분노하던 장면, 기억나세요?)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새아버지의 성으로 따를 수 없게 된답니다.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맞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8) 호주제란, ①호주 승계 순위에서 아들이 딸보다 우선이 되는 측면에서(나이와 상관없이), 또 ②이혼·재혼 가정의 아이의 성(姓)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어른이 된다, 또는 남자만이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법이라고 비판받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를 표현한 그림은 왼쪽 그림이죠. 저도 파평 윤씨 태사공파 33대 34세손이니 시조 할아버지로부터 또 파가 나뉘어서 태어나고, 태어나고, 정말 이렇게 제가 태어났을까요? 왼쪽 그림에서 과연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외증조할머니, 등등의 분들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왼쪽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아빠와 엄마 모두 유전자를 물려 주셨는데 말이예요.

정말 나의 뿌리를 그려본다면 오른쪽 그림이겠지요. 나를 낳아주신 아빠와 엄마, 아빠를 낳아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를 낳아주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그런 수많은 분들이 모두 제 유전자의 뿌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 조상님을 따져 볼까요? 10대만 따져 보더라도, 오른쪽 그림으로 하면 유전자를 물려주신 나의 조상님은 $2^{10}=1024$ 분인데 왼쪽 그림으로 보면 10분밖에 안된답니다. 그것도 '성'을 물려주신 남자 조상님만요.

우리나라 사람 99%는 왼쪽 그림이 맞다고 골라낸대요. 그렇게 교육받고, 또 주변 환경과 문화가 이렇게 세뇌시킨 거지요. 족보, 가문, 대..같은 가부장적 관념들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남성도 '대를 이어야 한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남자다워야 한다,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등등'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어요. 그런 억압과 부담을 깨뜨리자는 운동이 바로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입니다.

tip

잠깐!! 질문 있어요~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이 몇 대만 내려가면 성만 부르다가 습관해서 쓰러지지 않을까요?

→부모성 함께쓰기는 문화운동이랍니다. 그러므로 [김박**]씨와 [이조**]씨가 만나면 [김박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김조, 박조, 이김, 이박, 조김, 조박] 성들 중에서 하나만 골라 일상생활에서 쓰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호적에 올라가는 것처럼 법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에 의미를 두고 쓰세요! 그러니까, 부모성 함께쓰기를 통해 잠재적으로 '성'이라는 것을 2세대, 즉 부모와 자식세대간에 국한되는 반반의 공동코드로 쓰자는 것이고 3세대 이상 내려가서는 별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젠 부모성 함께쓰기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아참 한가지 더! 이런 부모성 함께쓰기나, 부모성 안쓰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특별해서라거나, 열혈 운동가라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생활 속에서 느낀 점, 불편했던 점 때문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주위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는 나쁜 놈'들이 아닌, 진정한 조상의 의미와 나의 뿌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고요.

세상 속에서 이걸 왜 이렇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 할 텐데.." 같은 막막함과 부담스러움을 느끼셨다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은 이런 답답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랍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야말로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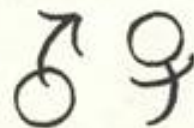
<도움 받은 곳>

『여성의 눈으로』 「칼럼 답답한 할아버지들과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고은광순, 1999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2000
『야화(경희대 한의대 여성학 소모임 준비호)』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지은영, 1999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놀면서, 웃으면서, 뒤집는다」 165~167p, 2000년 겨울호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www.no-hoju.women21.or.kr>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www.antihoju.jinbo.net>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여성 운동?

아니, 성평등운동?



성평등 운동은 모두 함께!!!



- 성평등운동, 같이 할까??

‘성평등운동’이라고 하면 남성들을 무찌르기 위해 드센 여성들이 의기투합하여 자신의 권익만을 신장시키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성평등 운동’은 말 그대로 여성과 남성 혹은 그 양쪽 성 사이에서 혼란을 빚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위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성평등운동은 여성, 남성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번 성평등운동에 대해 알아보까요?

“성평등운동? 그거 당연히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위치에서는 여자들이 불리하니까.. 분명히 여자들이 자기 권리찾는답시고 ‘성평등운동’이라고 말만 멋있게 한 것이 아닐까?”

‘성평등운동’이라고 하면 여성 위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는 남성 우위의 사회이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남성들에게 대항하여 자신의 권익만을 내세우려는 여성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다구 여성들만 하는 거시어?

눈치가 빠르다면, 바로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벌써 알아차렸을 거예요. 당연히 여성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여성들만 하는 것이라면 굳이 '성평등운동'이라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성평등운동의 주체는 누구인지 생각해봅시다. 누구죠?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럼 왜 우리 모두 주체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성평등운동은 말 그대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이든 한쪽 성만 항상 우월한 것은 아니예요. 남성들 역시 성불평등과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 혹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적인 배려와 화합을 위한 것이 바로 성평등운동입니다.

남자들은 언제 성차별을 느낄까?

지금의 사회는 관습에 의해 가부장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남성은 밖에서 자신의 '명성'을 떨치며 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좀더 쉽게 진출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굴레에서 좀더 자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남성들은 행복감에 젖어서 자신의 일에 종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분야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일까요?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에이~ 너는 남지면서도 그것도 하니 못 들어?"

〈엄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하는 충고〉 "남자라면 자고로 능력이 되어지... 그래야 한 가정을 책임지는 든직한 가정이줘..."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너는 장차 우리 집을 이을 기둥이야.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지 않겠니?"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가 남성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매우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아들로써,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 즉 남성의 사회적 지위만큼이나 남성에게 거는 기대되는 의무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남성들에게 억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부장제'의 실상이예요. 가부장제 남성의 실상은 남성이 우월해 보이는 현실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

깐 L모 군의 말을 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남자인 것이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내가 돈을 내 아쉽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보고 하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여자친구가 저보고 운동 좀 하래요. 몸이 왜소해서 남성스러운 매력이 없다나 뭐라나... 난 단지 '나'일 뿐인데 왜 사람들은 저에게 '남자'라는 이름을 씌워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 말입니까?"

남성도 성평등운동은?

L모군을 보면 우리사회가 남성이 우월하기만한 사회는 아니로군요~ 그렇습니다. 남성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억압과 굴레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라서 주어진 틀에 자신을 맞춰가려고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에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을 고쳐나가야겠죠?

또한 성평등운동을 하여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여성 혹은 남성 한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육아문제의 경우, 예전에는 어머니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었었죠. 하지만 성평등운동을 통해 육아를 공동분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좋은 아버지되기 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성들은 자신을 희생해 가족을 부양하는 동안 아내와 자식에게 소외되어 왔던 아버지 위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영향을 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평등운동은 누구 하나의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럼 성평등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부터 계속 성평등운동에 대해 운운하기는 하는데 그게 바로 뭘지 감이 안 잡히죠? 여성이다, 남성이다 하면서 서로를 갈라서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자기의 인식에서부터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인식을 넓히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신문이나 자료집 그밖에 홍보물을 간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 방법이 무엇이든간에 자신의 인식이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성평등운동'을 하는 것이죠.

interview

서울대 법과대학 김병욱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Q 현재 과내 여성학 동아리 '평지'의 회장을 맡고 계신다는데, 이 활동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나요?

A 물론 입학할 때부터 여성학에 관심이 있어서 동아리에 들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으로 들었다가 점점 이쪽 활동에 관심이 생기자 보니까 회장까지 맡게 되었네요.(웃음)
관심이 본격적으로 생기게 된 건 1학년 말 봄인데요. 그 때,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점에서 신입생을 위한 자습집을 만들게 되었죠. 그때 제가 맡은 글의 제목이 「남성이 페미니즘을 하는 이유」라는 글입니다. 전 그 당시 그 글에 대해 처음엔 의문을 가졌지요.

Q 왜 그것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거죠?

A 저는 '왜 하필 남자가 여성운동을 하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부유한 집 자녀가 노동 운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학생이 여성학에 관심이 있고, 여성운동을 한다고 하면 의아해 한단 말이지요. 두 가지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 둘에 대한 생각을 각각 달라요. 저는 거기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Q 그럼 남성이 왜 여성운동을 해야하는 걸까요?

A 그럼 우선 남성의 지위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군요.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받는 것은 꼭 여성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여성운동이 꼭 여성을 위한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것이 '나를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사회로부터 강요받듯이, 남성도 또한 사회가 원하는 남성성을 가져야 하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런 남성성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죠. 남성이란 꼭 한 가지를 먹여 살려 책임져야 한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그것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시다. 하지만 여성운동을 하면서 그 반감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남자라면 이래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깨닫게

가 시작했어요. 물론 이 활동을 통해서 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단지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것일 뿐이구요.

Q 신입생들이 대학에 와서 가져야 할 생각들은 뭘까요?

A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시절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때의 문화를 여기서 풀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때처럼 인간관계가 좁지 않고, 굉장히 넓거든요. 과 선배부터 시작해서 아주 넓게는 소개팅자리에서 만난 친구까지 정말 폭이 넓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면 그 만남은 기쁘지 않을 수 있죠. 특히 여학생과 남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그 둘 사이의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죠.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배려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배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군요.

Q 남성이 여성운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은?

A 남성은 남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스스로 아무리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라 할 지라도 페미니스트는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 아니므로 여성이 가진 생각을 100%다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구요. 얼마전 법대 회장실에 상리대 자동 판매기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했었어요. 그때 여자 후배에게 이 서명을 하라고 하면서 설명할 때 그 후배가 그러더군요. '오빠가 상리에 대해 뭘 알아요?'하구요. 그때 참 당황스럽더군요. 그 후배가 한 소리가 틀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여성학을 공부해도 제가 그 입장이 아닌 이상 여성에게 다시 설명하는 일은 어려운 것 같네요.(웃음) 그렇다고 제가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다시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대기 되고 말겠죠.

남성이 성평등운동을 하는 것은 주변에서 혼란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얼핏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상깊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요?

끝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00학번 김병욱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Open Your Mind!!~

表裏寒熱虛實陰陽과

세상읽기

한의학적으로 병에 있어 중요한 것은 표리한열허실음양(表裏寒熱虛實陰陽) 등 여덟 가지이다. 병태가 대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변증(辨證)의 방법 또한 이 여덟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인체정기(人體正氣)의 상황, 병사(病邪)의 성질, 성쇠, 그리고 부위 등의 정황에 근거하여 표리한열허실음양의 여덟 가지 증후로 귀납시켜 변증의 기초로 삼는다. 이러한 표리한열허실음양을 팔강(八綱)이라고 하여 한의학 변증의 기본 강령이 된다. 한의학적 눈으로 보면 결국 병은 팔강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다양한 한의학적 눈을 여러분들은 조만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좀더 시야를 넓혀서, 그대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바라본 세상은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보는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번 입사에서 사상 유래없는 한의대, 의대, 치대 진학 열풍과 공대기피현상은 사회적 이슈를 넘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다. 이런 힘든 경쟁을 뚫고 입학하게 된 우리 새내기들의 입학에 대해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최근 들어 한의학은 TV나 라디오 프로 그리고 신문 같은 매스컴에서 갈수록 명위를 떨치고 있다. 한의학이 지금처럼 주목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 얘기가 아니다. 지난 반만년 역사 속에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던 의학이었으나, 일제시대 이후로 서구현대의

학이 들어오면서 한의학은 낡은 민간요법으로 전락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간의 수난의 세월을 곳곳이 참아내고 이제야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의대 입시과열은 사회적 현실을 생각할 때 걱정스런 마음을 거둘 수가 없다. 실업률은 날로 치솟고 있으며, 사회 모든 부문에서 피말리는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안전보장망은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호들갑은 크지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과 구조적인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은 부족한 것 같다. 올해 들어 새해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대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크게 히트를 쳤다. 그 이유는 물론 텔런트 김정온의 함직한 광고가 한 몫 하긴 했지만 지금의 사회 현상이나 사람들의 심리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세상은 냉정하며, 경쟁에서 이긴 자는 정상에서 미소 지을 수 있지만 대다수 나머지는 그 아래에서 비참함을 맛보고 있다. 왜 이런 소리를 꺼내느냐고 반문하는 새내기가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젠 어느새 우리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되어버렸다.

얼마 전 귀화 러시아인 박노자 교수가 지은 『당신들의 대한민국』에서 제기한 그의 물음과 비판에 대해서 부끄러운 바가 많았다. 그는 경희대 러시아어과 전임강사를 역임하기도 했던 사람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종종 읽는 사람이라면 한 번 들어보았을 것이다. ‘토종 한국인보다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서로 잡아먹기를 탐하는 사회, 전근대와 국가주의’의 모습을 안타까이 보았다. 그러나 그가 품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애정은 그 누구보다 적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다양성의 나라,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나는 새내기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보수적인 사고를 알게 모르게 강요당해 왔다. 보수적인 학교교육과 사회의 틀 속에서 나는 어느새 우울 안 개구리였던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각계의 미국에 대한 새로운 관계 설정 요구는 더 이상 새로운 만한 얘기가 아니다. 내가 고3(96년도)이었을 때 반미구호와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크게 탄압 받던 시기였다. 물론 그들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일 뉴스에서는 학생들의 친북 이적 행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였고, 학생들이 왜 그런 주장을 갖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들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그들은 단지 철모르는 학생일 뿐이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이랑 같이 뉴스를 지켜보면서 부모님 이상으로 핏대세우며 그들을 비판했던 나 자신이 생각난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내가 그러한 선배들과 가장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새내기 시절 나는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내가 경험한 그들은 철이 없다기보다 오히려 순수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다. 지난번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이번 동계올림픽에서의 심판의

오심으로 인한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획득 실패는 이제까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을 다시 보게 한다. 과거 우리가 그렇게 우리러보던 미국의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다른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 자신의 이익에 충실했을 뿐이며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있으며, 아마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상은 분단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깨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장래 한국사회의 특권층 후보들이다. 여러분들이 한국사회 특권층의 후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정확한 사회인식이 남다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은 즐기게 남을 소외시켜왔다. 전 교육과정에서 경쟁의 이름으로 남을 소외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서울대생이 될 수 있었다. 즉, 여러분들은 남을 소외시키는데 이력이 나 있고 또 그것을 능력이며 자랑으로 알아왔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남을 소외시키면서 하등 마음빔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아니, 소외시킨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지도층에게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다. 특권층이라는, 자각하거나 자각하지 않는 의식만 있을 뿐, 지도층이 될 수 있게 해준 사회에 대하여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 의해 여러분들은 지금의 특권층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장담할 수 있다."

홍세화씨가 예전에 서울대 학생들에게 한 강연내용 중 일부분이다. 이 내용에서 제기된 비판에서 나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한의사들이 졸업 후에 조그마한 한의원 안에 갇혀서 마치 세상과 격리된 듯한 삶을 살고 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들 대다수 그렇게 살아왔고 어쩌면, 아니 아마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는 항상 두렵다. 더더구나 부족한 나 자신을 알기에 그런 두려움을 떨치기 힘든 것 같다. 의사를 나누는 기준 중에 대의(大醫)와 소의(小醫)가 있다. 대의는 단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일컫는다. 세상을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 둘씩 포기하게 되는 것이 있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이것 하나만은 포기하지 말자. '인간을 보는 파스한 시선'. 그것이 바로 우리 학문의 자랑이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후배들에게, 아니 평생 같은 한의학을 할 동지로서 다시 한번 醫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세상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대의(大醫)가 되길 같이 소망해본다.



맛집멍집

-숨겨진 名家를 찾아라



맛/집/

가격 상한선은 3,500으로 정했습니다. 식사류를 중심으로 다뤘고요(술집은 없습니다 ^^). 추천메뉴 중심으로 채점과 가격 표기를 했으니 참고하세요^^ 별 5개가 만점입니다.

회기역 근처

신신원

서우은행 사거리 회기역 방면 X97 대리전 옆 ★★★

주 메뉴는 오뎅, 핫도그, 닭고치 등 분식 메뉴로 100~800원 사이의 음식이 추천입니다. 조그만 분식점인 신신원은 동전만 가지고 배를 불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밤중에 공부하다 졸졸하면 가기 좋죠. 단, 기름진 탓에 소화불량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있네요.



경희대
정문

후야분식 경희대 정문 던킨 도너츠 골목 안 패밀리마트 앞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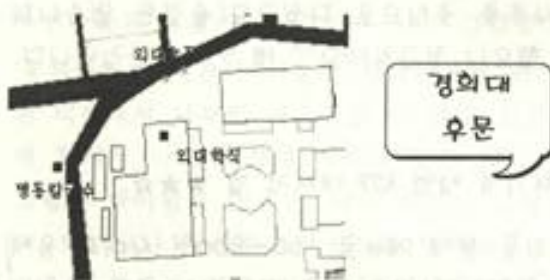
각종 김밥, 볶음밥을 1500~2500원에 정말 맛있게 해주는 조그만 분식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사람이 많아 서비스가 비교적 안 좋다는 점이지요. 예를 들어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고, 약간 불친절해요.

Tube 경희대 정문 던킨 도너츠 골목 안 패밀리마트 앞 ★★★★★

학기 중에 한해 6시 전에 드라이 하이라이스와 카레라이스를 1900, 2500의 가격에 두 가지를 팝니다. 맛도 괜찮고 술집이니 만큼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유명심곱살 경희대 정문 던킨 도너츠 골목 안 패밀리마트 왼쪽 골목 ★★★★★

삼겹살을 1인분에 2300원에 파는 곳입니다. 부담 없어 고기 먹기엔 최고죠^^



명동길국수 학대 후문앞길 왼쪽 ★★★★★

만두, 칼국수를 3000~3500에 먹을 수 있는 이곳의 포인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국수 사리와 밥! 즉, 칼국수 한 그릇을 시키면 사리를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것! 만두와 칼국수 양쪽 모두 맛이 뛰어나고 담백합니다^^

외대학식 학대 후문 앞쪽의 오른쪽 건물 ★★

우리도 외대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외대 후문 오른쪽 건물에 있는 외대 학식은 1000~1800의 가격에 학식이 나오죠. 다만, 학식이니만큼 약간 불편한 건 감수해야겠죠?



독배기의 예술 학대 정문 롯데리아 옆 골목 ★★★★★

각종 독배기를 3000~3500에 파는 이곳의 장점은 기본 배팅밥! 양푼 그릇에 나오는 밥에 같은 야채와 참기름을 넣어 찌개와 함께 배벼먹는 맛이 포인트입니다. 아주머니도 친절하시고, 반찬도 정갈하고 맛있습니다.

Dr. 닭덕 학대 정문 롯데리아 옆 골목 ★★★★★

정심 메뉴로 치킨 스테이크가 맛있는 곳입니다. 치킨 스테이크 3000, 양념 스테이크 3500원 두 가지 메뉴에 빵이나 밥, 샐러드가 같이 나오고 콜라는 무료 리필 됩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합니다.

이슬푸름 학대 정문 롯데리아 옆 골목 ★★★★★

김치, 피자 돈까스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아주머니의 걸속한 입담과, 손수 끓여주시는 식후 커피와 녹차가 최고죠. 가격대는 3000~3500입니다.

오뚜기 부대찌개 학대 정문 앞 에이스 안경점 골목 ★★★★★

부대찌개 하나만으로 승부를 거는 음식점입니다. 그만큼 맛있어서 자꾸 가게 되는 곳이지요. 1인분에 3,500원이고 넉넉한 편이라서 3명에서 2인분에 라면사리 하나 추가하면 충분히 한끼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은주네 학대 정문 앞 2525시 골목 ★★★★★

대학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생선튀김을 맛있게 하는 곳인데요, 찌개도 맛있습니다. 2500~3000원대의 메뉴들이 추천이고요, 아종마가 친절하셔서 친구들 같이 가면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단, 반찬 가지 수가 적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요.

먹/집/

홍릉수목원 134번 버스→세종대형 기념관 정거장

한국 최초의 수목원인 홍릉수목원은 아담한 멋의 수목원으로 일요일에 한해서만 일반인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목원의 주 코스인 설명이 있는 숲 산책로와 축구場的 각종 무궁화가 키포인트입니다. 9시부터 17시까지가 개방시간입니다. 음식, 담배는 반입 금지라는 것 아시죠?

고려대 아이스크림 7호선 안양역→아이스링크 셔틀버스

고려대에는 거희대에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요. 고대 길숙이 숨겨져 있는 이 아이스크림은 찾기가 쉽지 않아 셔틀버스를 타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방시간은 13-18시입니다. 가격은 입장료 4,000원, 대어로 3,000원입니다. 셔틀버스 시간표는 고려대학교 사이트 내의 http://www.korea.ac.kr/web04/web0405/0405_06.htm (공 길조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긴 바지를 입고 가야 무릎이 안 까지겠죠?? 또 안에 들어가면 500원에 장갑을 파는데 장갑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사는 편이 좋아요.

동대문 심야시장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 1번 출구

정말 멋진 옷을 만원 이하에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주말은 열지 않고 밤 9-11시 사이에 개장해서 새벽 5시에 끝납니다. 평의시장이 대표적이죠. 도매시장이라서 호객행위는 없습니다. 다만, 할인은 안 해주고요. 개인이 가면 약간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대학로 4호선 혜화역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유명한 대학로가 있습니다. 이곳의 추천할 볼거리는 바로 연극! 대학로 연극 대표소에서는 사랑티켓이라는 2인 10000원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대학로에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연극들도 많고, 또 그냥 근처의 마로니에 공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를 구경하는 것도 좋죠 ^^



Open Your Mind!!

Daily Plan - 생활(Life)



- 생활**
- ☑ 아름다운 여행자, 정수(정수)
 - ☑ 건강한 몸이 아름답다(수경)
 - ☑ 생활의 쓴맛(정호미자)

아름다운 여행자, 정수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는데 한 번 긴 행낭에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여행이란 주제로 글을 쓰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행의 어떤 부분에 대해 적을지 고민하다가, 읽을 집할 수 있는 여행 안내서나 참고지침을 읽어 읽히지 않은 부분을 적어 봤습니다. 여행의 기술이나 요리 혹은 여행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여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조금 더 주제를 내어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적어 봤어요. 나름대로 고기를 잡은 법을 써...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Intro...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되면, 오래 유럽 여행을 한 번쯤은 다녀와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반쯤 농담으로 말한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도,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나 일상에서의 탈출을 위해 여행을 떠나곤 하죠.

저도 이번 겨울에 나름대로의 이유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때까지의 '따라다니며 관람하기'를 벗어난 여행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한달 동안 간간히 짐을 내서 준비를 하고, 보름 동안 유럽으로 배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다소 무리하게 움직여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열광하는지 조금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여행이란 것을 새내기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감히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했던 자료들을 참고해서 몇 가지 귀뜸해 드릴게요.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 목표.

여행을 떠나기 전엔 자기만의 확실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난 거기 다녀와 왔다.'라는 말을 위한 짐을 위한 여행은 가장 피하고 싶은 여행의 목적이구요. 그렇다고 너무 거대하고 버거운 목표를 설정해서 여행 내내 목적에 얽매인 피곤한 여행도 말리고 싶어요. 여행의 목적을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도 가니까...' 혹은 '그냥~'이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라는 자신이 주체가 된 뚜렷한 목표를 세웠으면 합니다.

@처음이라면?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미술사·건축사·서양사 등을 공부하고 나서 '난 이번에 미술사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식의 한 부분에 집중한 목표를 설정하기를 권합니다. 굳이 이러한 범주가 아니더라도 '주류기행(酒類記行)' 혹은 '나라별 감자 요리 먹어보기' 등도 괜찮구요. 갑자기 밀려드는 새로움 속에서 놀라운만을 연발하기보다는 뭔가 하나 확실히 보고 오는 게 좋겠죠? 여행을 하다 보면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이 실감 날거예요. 특히 미술사, 건축사는 유럽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보장합니다. '유명한 미술관이니까...' 라는 마음에 들어갔다가 길 따라 복도를 걸어 나오는 허무함이란?



@목표가 부담스러우세요? '단지 새로움에 빠지고 싶어.'라든가 '난 그저 쉬고 싶을 뿐이야!'라고 외치며 좀머씨처럼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목표를 정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단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여행을 하라는 것만은 잊지 않고 여행을 했으면 해요. 일정에 끌려 다니거나 단지 와 봤다는데 만족하지 않고, 여행을 하며 생각하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좋겠죠? 주된 목표가 되기는 힘들지만, 영어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여행객들과의 대화를 목표에 추가하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다양한 생각의 틀과 각기 다른 생각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표현력의 증가도 경험할 수 있겠죠.

본격적인 여행준비! 그 첫번째, 여행 설계

여행의 목적이 정해 졌다면 여행 설계를 해야겠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여행의 목적에 맞는 여행을 위해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자세한 일정표를 세워보세요. 여행 설계를 할 때는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숙소를 정했는데 가보니 그 숙소가 없어 졌거나, 예상했던 것 보다 요금이 더 비싸거나 하는 등의 변수가

생기면 여행에 지장을 주고, 이러한 오류들이 누적되면 여행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두 번째 원칙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이것저것 욕심이 생겨서 무리해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행 중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설령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돌발상황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죠. 여유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여행도 한결 수월하고, 일정에 쫓겨 다니는 일도 없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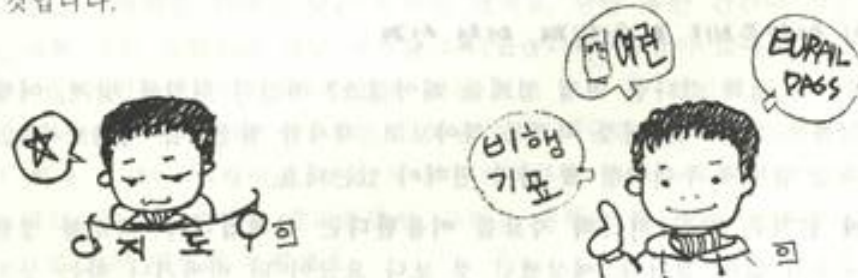
@세 번째 원칙은 **현실성**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미 그 곳을 다녀온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면,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책으로만 읽어서 손에 잡히지 않던 이야기도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여행의 번거로움을 미리 알아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행 설계도는 여행을 책임질 중요한 자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상황에 따라 정보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거나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도 하죠. 그때 미리 준비해 온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이동의 자유를 위한 - 비행기표, 여권, 유레일 패스 준비

여행계획을 세웠으면 여행에 맞는 여권, 국제학생증, 각종 티켓(비행기 표, 유레일 등)을 준비해야 되죠. 간혹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으니 비자를 준비·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병역 미필자는 여권을 만드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니 해당 병무청에 자세히 알아보고 발급 받도록 하구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비행기표와 유레일, 비행기 표는 각 여행사 별로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열심히 다리품을 팔아서 비행기 표를 저렴하게 구하도록 합시다.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구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듣기보다는 직접 뛰어보고 찾아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틀을 지우고 싶지 않은 저의 작은 배려(?)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구요, 다음 여행을 위한 노하우 축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짐만 챙기면 되는거야? 준비의 마지막, 짐 챙기기

짐을 챙길 때는 미련을 버리는 연습부터!

여행을 가서 꼭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부피가 작을수록 좋구요. 현지에서 구입 가능한 물건이면 그곳에서 사는 것도 좋아요. 전자 제품은 전압의 문제와 콘센트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게 좋겠죠.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서, 여행을 하면서 짐을 줄이는 것도 요령 중 하나입니다. '혹시...'하는 마음에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물건을 넣는 건 피하세요.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여행의 일부구요,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면 그 곳에서 팔고 있을 거니까요.



Take it easy

짐까지 다 챙기셨다구요? 그럼 이제 모든 준비는 끝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여권을 제시하고 비행기 티켓을 내고 비행기에 올라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여행 일정에 따라 유레일 혹은 다른 수단으로 이동하면 되죠. 때가 되면 밥은 사먹고, 잠은 숙소에서 자고 일정이 끝나면 다시 귀국하면 여행도 끝이 납니다. 말로는 될 못하냐는 말을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여행을 너무 힘든 것, 막막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해본 거예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무얼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구요. 사소한 집착부터 사라지고, 이것저것 많은 생각도 해보고, 평소 해 볼 수 없었던 많은 경험도 할 수 있구요. 의식주에 대해서도 조금씩 초연해 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죠. 여행에서 각자가 느끼는 것은 다양하겠지만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면 분명히 자신을 Up-Grade 시켜주는 여행이 될 거예요.



건강한 몸은 아름답다



일반적으로 '몸'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가진 기준은 자신의 '몸'을 평가하기 쉽다. 때문에 자신의 몸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기준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애매기둥에게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현실적인 사회적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건강한 '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우리 반에 키가 170cm에 육박하고, 매우 튼튼한 '너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너석은 자신의 튼튼한 '몸'때문에 책상이나 의자 등을 나를 때마다 불러 나갔지요. 근데 육체 노동을 시켜서 마는 건 다 좋았던 말입니다. 봉사자원에서 말이죠. 하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놀리는 것은 정말 싫었습니다. '갑바○'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 너석'의 성적 정체성은 대충 감 잡으셨겠죠? 바로 여학생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는 '맨(man)'이 아니라 '걸(girl)'을 말한 것이었죠. '그 너석'의 예에서 여러분도 느꼈듯이, 여학생은 '튼튼하다'라는 말이니 '근육'이라는 말이니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여학생들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것일까요?

아름다운 몸, 그 '기준'의 정체론 밝혀라!

우선 그 '기준'이라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흔히 '아름다운 몸'이라고 한다면 어떤 표사가 따라붙습니까? 여학생의 경우에는 '날씬하다'라는 말이나 '약간 마른'이라는, 혹은 '보기 좋게 퉁퉁한'이라는 단어 등이겠죠. 한편 남학생의 경우에는 보기 좋게 근육이 붙은 소위 '갑바'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지 않나요?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키와 몸무게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여자는 '165cm에 45kg'이라는 것이 여자라면 갖춰야 할 사이즈라는 말도 있죠? 그럼 여학생들 모두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아름다울까요? 한편, 남학생들은 키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남학생은 '키가 커야 웬지 믿음직스럽고 듬직하며 남자다운 스타일이 산다'라는 편견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 모든 기준들은 누가 특별히 정해서 배포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몸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듯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잠재된 기준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긴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준을 머릿 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단지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매체를 접하면서 아름다운 몸에 대한 관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보는 TV에서 "날씬한 몸을 원하십니까? 파워○○○트"라는 광고 본 적 있으셨죠? 그 광고를 보면 우리 모두가 날씬한 몸을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기준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느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바로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매체에서 보여주는 '몸'은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을 추구합니다. 미인대회에서 보여주는 가슴둘레-허리둘레-엉덩이둘레 치수가 36-24-36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을 비판 의식없이 받아들여 자신과 타인의 몸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기 다르게 생긴 사람들에게 그런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약간 무리겠죠?

우리가 지녀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름다움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대신 그 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정답은 각기 다를 수도 있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신을 더욱 빛내기도 하죠. 진정한 아

몸다움이 건강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한의학의 기본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은 '자신의 몸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않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되고 심지어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한의사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심어줘야 할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나부터 자신의 몸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하겠죠? 그럼 그 방법을 살펴 볼까요?

아름다움을 위한 우리의 행동 강령

1. 저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듯이 몸도 저마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호호...난 너무 뚱뚱한거 가터...-;-;;"

"왜 난 저 친구보다 키가 작고 다리가 짧은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파~악 파~악 올라가겠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구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우선 그 스트레스부터 화~악 풀어버리세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자신의 몸에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낀다면 OK!!!~

2. 건강을 위한 자신만의 '양생법(養生法)' 혹은 '다이어트'를 구축해 봐요.

뭔가 도움이 될 듯 싶어서 어떤 학생의 예를 들어봅니다. 자기에게도 괜찮은 것 같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Ex.)

① 밥 먹고 5분은 꼭 걷는다. 가끔 주위를 둘러보아 아무도 없을 때는 배를 문지른다. 복목 쳐주는 것도 느낌이 좋은 거 같다.

효과 : 소화가 잘된다.

② 가끔 집에서 평굴 때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발목을 잡고 복부를 둥글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진동(?)운동을 한다.-.-

효과 : 변비에방효과!!!

③ "食無求飽"(먹되 배부름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더라. 배부르지 않게 먹는다. 그리고 이것저것 골고루 먹는다. 영양의 '다양성'을 위해서...그리고 난 열혈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소를 많이 먹는다.

효과 : 나름대로 식생활 개선...

④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래윗니 부딪치기'를 한다. 먼저 앞니, 다음 어금니를 사알~딱 리드미컬하게 부딪쳐준다.

효과 : 얼마 전 TV와 신문에서 이런 운동이 뇌를 자극하여 머리를 좋게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머리만 좋게 하라? 치아건강에도 좋습니다~!

⑤ 배문지르기! 왼손을 배꼽에 대고 시계바늘 방향으로 처음에는 적게 회전하고 점점 크게 회전한 다음 오른손을 바꾸어 배꼽에 대고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처음에는 크게 회전하고 점점 작게 회전한다. 회전하는 원의 직경은 대소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끝마칠 때는 왼쪽 손을 안에 그 위에 오른손바닥을 덮는다.

효과 : 복부 지방 감소, 변비 예방

3. 다른 사람의 외모를 사회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된단 말이어요~

아까 위에서 사회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것은 단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고 획일화된 것이구요. 그런 기준으로 각기 개성있는 친구들의 외모를 평가한다면 친구를 소외시키는 것이예요. 그러면 안되겠죠?

또, 친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과 자신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잠깐! 건강을 위한 OX퀴즈!!

- ☐ 아침은 지각을 불사하고 꼭 쟁겨 먹는다. ✓
- ☐ 하루 세 끼는 기본이다. ✕
- ☐ 나는 편식하지 않는 착한 어린이. ✓
- ☐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
- ☐ 먹고나서 꼭 몸을 움직여준다. ✕
- ☐ 헛먹고개 넘는 것이 즐겁다. ✕
- ☐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애용한다. ✓
- ☐ 난 내 몸에 만족한다. ✕

☐ 변비, 걱정 없다.

☐ 잠이 잘 오고 아침에도 잘 일어난다. X

도대체 0기 몇기나 나왔나요?

0~3 : 자신의 몸부터 사랑하라! 밥 꼭 잘 챙겨먹어야죠. 특히 아침말이에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잊지마세요!!!

4~7 : 뭐, 무난하네요. 좀 더 노력하면 건강한 아름다움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에요.

8~10 : 정말 건강하군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so cool~!

♥ 『의학기공학실습』 (김광호 교수 편저)를 참고하였습니다.♥

생활의 쓴맛



맛아 맛아, 세내기, 이럴 때 당황스러웠다!

대학에 들어왔다! 새터 친구이다. 예과 대면식이 다. 연일 이어지는 술자리. 하지만 새롭게 알게되는 선배들과 동지들과의 술자리가 심심한 않다...

3월 했다. 내가 맘에 든 걸까? 아저씨네 내 옆에 앉아 있네. 하하 내가 한 외모 하하. 하하.....그런데 이게 뭐야? 갑자기 내 팔을 잡으며 '너 보자봐' 말이 많구나. 아저씨네도 않게 대화도 심심한 것 같아. 이 달이오라고, 같이 웃었지만 별로 즐겁지 않았다.

4월 애들이랑 나들이 켜켜게 가는 느낌이 든다. 이제 동아리도 들어고 해해. 다만, 한 동아리 여자애가 계속 나보고 키 작고 얼굴 크다고 놀린다. 한외대 남자는 겁바가 없어서 불쌍이 없다나? 기가 막혔지만 켜켜는 별 생각 없이 그러는 거 같다. 켜. 하지만 난 켜켜이 못지 않다.

행운회에 갔다. 여자가 별로 없고, 남자들끼리만 왁자지껄하니 잘 어울리기가 힘들다. '아, 여기 여자애들 있는데, 심심하게 하면 되나.'라며 모의사랑들을 피하듯 선배, 나더러 '야, 애들아, 너희들이 먼저 켜고 해주고 그래봐 봐. 이렇게 켜켜해봐 되겠어?' 라고 켜켜하러 갔는 여자애들. 하지만 난 켜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분이다.

동아리 모임에 가면 남자선배들은 여자애들한테만 잘 해주는 거 같다. 우리들끼리는 '너희들은 강하게 켜라'는 등, 켜도 켜 사귀고 켜도 켜 사귀면서 켜 켜 다 시킨다. 켜. 왜 여자선배들이 많지 않은 걸까?

5월

놀라리와 대동계, 성년식 등 연일 이어지는 행사로 거의 수업을 못 들어간다. 외로운 맘을 다잡고 원혼 수업을 들었다. 음양? 그래 한의학의 기본책대로구나! 교수님曰 '여자는 음이니깐 주로 집안 일을 하고, 남자는 양이니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영? 요즘엔 사회 생활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졸업하면 직업을 가질 거고 말야... 교수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 설마... 우리 동기들도?

6월

화장실에 갔는데 캄오모머니가 불룩 들어오셨다. 음... 남자와랑일 필요를 하시는 건 몸지만 사람들이 이 일을 때는 좀 피해야겠으면, 나가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모임모임(?) 불 일을 봤는데... 아, 당황스럽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예인 노도사진, 학생 사진이 올라왔다. '예쁜 사진이라서 같이 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분명히 그럴 보고 얼굴이 붉어질 사람들이 있을 텐데... '몸은 외도'라는 데 내가 왜라고 하면 괜히 분위기만 이상 해지지 않나?

도대체 기말고사가 끝나고 신나는 줄자리, 근데 한 번에 왠, '너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뭘 믿고 공부 안 하는 거야? 여학생이 너 정도 엉망이면, 병원이기 힘들어한다 같이 공부하는데 왜 여학생/남학생 같아서 보는 걸까?

이 경험의 실체는 무엇인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처럼 당황했던 경험을 한 두 번은 해 보았을 거예요. 위와 같은 경우, 주위 사람들이 의도적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불쾌감이나 당혹감을 느끼게 되지요. 특히 그것이 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는, 불만이라든가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여!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위와 같은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영? 성폭력이라뇨? '성폭력은 강간치사를 말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네요. 아닙니다. 보다 넓은 의미의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답니다. 즉, 성기삽입이나 신체적 접촉 외에도, 성적인 수치심·불쾌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것,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다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또한 학습권도 침해하는 것이지!

'대학은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교에서도 학생간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간의 성폭력(9) 등 알게 모르게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인격적인 교육 및 근로 분위기를 해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요, 학교 생활에 대한 두려움, 수업 중 불쾌감으로 수업내용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등 학생들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즉 학습권이 침해되게 되는 거죠.

우싸, 바사 함께 얹어 가는 성폭력!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물론 두 사람 선에서 얘기가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다 더 큰 차원에서 대학 내에 부단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방하며, 사건 발생 시 해결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여러 대학에서 '反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불어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 잡고,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가려고 하구요. 경희대학교에서도 작년에 학칙이 제정되었고, 올해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자, 여러분, 더 이상은 성폭력 당하구선 얼굴만 빨개져 있기 없기예요!



X 신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 3자가 상담실에 한다.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총여학생회실 : 966-0667

9) 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것이 흔히 우조교사건으로 알려진 서울대신정휴교수 사건이죠. 바로 이것이 교수-학생간 성폭력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신정휴 교수는 다시 학교에 복직되었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계속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편 집 의

끝났다니 시원섭
섭하다.

좀더 잘할걸...

- 병진

호호... 나의 삼절로
아름다운 책을 이루었
구나...~☺
- 수경

이번 새내기 다이어리를 만들면서 힘든 점도
많았고 때려치우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한의대
에 온 이유와 성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된 뜻깊
은 시간이었다. 힘들게 고생했지만 다같이 고생
하고 불평없이 잘 해준 동기들, 사랑해~♥
- 지원

'아름다운 여행자 정
수'란 이름은 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ㅠ.ㅠ

다들 수고했어~♥

- 정수

새다른 경험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신입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쓰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
었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글이 조금
이나마 한의대 생활에 도움이 되었
으면 좋겠다.

- 영빈

새내기 다이어리

기획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산하 성평등위원회 "달해"
기획팀장	지원
편집팀장	수경
기획인	병진, 수경, 영빈, 정수, 지원
날짜	2002년 2월 28일
special thanx 2	여옥('00), 구자훈('97), 성연('01)